

해방(엡2:1-10)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답을 내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답이기에 그렇다. 여기에 답을 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믿음이 온다. 귀한 일인데 이때부터 믿음과 기도대로 된다. 복음이 답으로 발견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복음의 답이 나지 않으면 누구나 흔들린다. 이유는 답이 없기에 그렇다. 복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면 방향을 멈추게 된다. 비로소 하나님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진짜 진심이 되고 기도도 마음에 담고 하게 된다. 마음도 비로소 그때부터 조용해진다. 이렇게 살다가 평생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 주시면 100년의 응답이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은 우리를 평생에 인도하시게 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치유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은 꼭 성경같이 되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모세처럼 평생을 인도 하실 것이고 거기서 계속 메시지도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노아처럼 위기를 뛰어넘을 지혜도 주실 것이다. 수많은 갱신과 기적을 통해서 요셉처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게 하신다. 복음에 답이 난자는 누구나 이런 인생에 예약이 되어있으니 오늘 일어나는 일로 낙심하지 말라. 멀리 보고 언약을 잡고 기도로 전쟁을 붙여라. 이 일을 방해하는 놈은 한 개 딱 있다. 사단이다. 세상은 전부 영적 문제다. 원죄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언약에 답 내면 누구든지 언약 자체에 생명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시대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복음을 주신 것이다. 이래서 되겠냐는 속은 생각이다.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하고 문화를 새로 만들었다. 그들은 당시에 죽지 않으며 다행히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문화를 정복한 것같이 우리도 미국, 남미를 살려야 할 것이다. 계속 해야 하기에 렘넌트에게 전달이 되고 남미 끝까지 가야 된다. 언약을 갖고 승리하고 전쟁을 붙으면 된다. 절대 낙심되어 질 이유가 없다.

1.해방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렸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영적상태인지 아주 잘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어떤것인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 1절에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셨다.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2절에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풍조를 따랐고 공중에 권세 잡은자 사단을 따랐다. 3절 절대 살아날 수 없는 본질산 진노의 자녀라고, 4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셨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다. 6절에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셨으니 놀라운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자비하심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목적을 말씀하셨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다. 9절에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전에 예비, 창세전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은 스토리를 잘 요약 정리된 말씀이다. 잘 아시는데로 원죄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울무에 걸렸고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에 대한 울무에서도 나올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원죄 이전에는 없었다.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 이후로 인간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죄 이전에는 자살, 살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 이런 일은 지금도 자주 일어난다. 왜 아이들이 총을 들고 이유없이 친구를 죽이는가 저주요 재앙이다. 본래 인간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 세상 환경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니었다. 전에는 태풍 불지 않고 비가 많이 와서 죽지 않았다. 허리케인 때문에 몇백년된 좋은 집도 다 날라간다. 에덴동산 사건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설명을 하려면 많이 있다. 하나님과 인간사이에는 언약이 살아있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 절명이고 눈이 열리면 성공하고 정복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세운 것이다. 이것을 지켰으면 우리는 절대 사단의 종이 되지 않았다. 사단이 아무리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된다. 만일 안먹었다면 창조된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걸만들어 사람을 죽게 하냐고 따지기도 한다. 그렇게 되었어도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도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앞에 대드는 소리만 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 있는대로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것이다. 그때 주신 언약은 인간을 완벽하게 지킬수 있는 완전언약인데 언약을 놓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언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언약을 새로 주셨다 창3:15절이고 이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창3:21 비밀이다. 이유는 필요없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잘하나 못하냐가 없고 하면은 역사 일어난다. 이제부터 인간은 여자의 후손 이언약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거 말고는 저주에서 나오는 길이 없고 응답을 받는 길이 없다.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이 어디있는가 계속 밀려온다 저주이다.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라서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약속의 피제사를 계속 하면 뱀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니 내 멍에는 쉽다고 하신 것이다. 복음은 간단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복음을 잡고 사는 사람은 인생도 간단하다고 말한다. 아무 이유가 필요없고 무조건 이것만 하면 된다. 약속의 피는 뱀머리를 깨는 여자의 후손이다.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것도 없다가 마6:33이다. 피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네 문제 해결하겠다.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나 네가 누군데 너는 내 약속의 피로 생명을 얻은 내 자녀야 신분을 회복하라 이런 저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응답이 오고 정답이 온다. 말이 많은 사람은 답이 안나서 그런다. 사역자 메시지도 답안 사람은 거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고 거기에 대하여 간다. 일반 답안 사람도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고 답없는 사람은 계속 말한다. 언약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의 피가 내 언약이다. 언약은 에덴동산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이다. 문제가 있어도 필요없다. 에덴동산, 문제가 있어도 더 좋아 더 큰 증거를 주실것이니까. 더 큰 증거와 응답을 보게 될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주신다는 언약을 주셨다. 설명도 필요없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절대로 해결 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를 해결해주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을 해결해주셨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되받아 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건져주신 것이다. 왜일인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에 결정하셨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의 뜻대로 내 노력이 아니다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어머니의 태속에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해버렸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결정이 변하지 않는다. 해가 동쪽에서 뜨다가 서쪽으로 뜨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실수 안하시다. 전능하시기에 실패도 없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성경은 여러곳에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물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할 실패하지 않으셨으니 믿음으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라.

2. 누림과 정복 해방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흘리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다. 안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울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어떤 분은 자기도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십자가의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생각할수록 죄송하지만 나의 고난의 삶으로 갚으려고 한다면 틀린 생각 효과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누리야 한다. 언약으로 잡고 누리면 나타나는 증거가 승리이다. 응답을 받게 되어있다. 그리고 치유가 되어진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한다. 하나님이 더 잘아신다. 내가 할 일은 이 언약을 잡는 일 한 개 뿐이다. 여기서 인생전체를 결판을 내야 한다. 인간이 메달릴곳은 하나 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절대 원죄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죽어주셨으니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은 좋은 자세이다. 나를 죽여서 고난의 삶으로 보답을 한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사하여 나도 헌신하겠다 골1:24 나는 이제 너희를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한 것이다. 복음운동을 위해 남아 있는 복음운동의 고난을 자기 몸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놀라운 결심이다. 뜻을 정한 것이다. 이런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다. 이런 사명의식은 자기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아니고 율법, 종교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언약을 잡고 승리를 해야지. 언약을 잡으면 살려주시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가? 오히려 누리고 감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을 저주에서 건져주는 복음전하는 일을 평생에 해야 하고 함께할 제자를 찾아야 한다. 이 일을 땅끝까지 남미끝까지 해야지 이일을 위해 기도 헌신하는 놀라운 자세이다. 우리는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기에 완전하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저주에서 나오는 것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게 없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중단이 안된다. 절대적인 권세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우리의 죄사함에는 이 권세가 있다. 단순히 죄만 용서한게 아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저주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깰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주로 돌아갈일은 없다. 이 원죄를 깨고 사단의 머리를 깨는 죄사함의 권세 우리를 절대 지옥의 운명에 잡히지 않는다. 죄사함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다. 이제 너는 해방이다 너를 붙잡을 것 없다. 나를 누리라 정복해주겠다. 이것이 죄사함이다. 누림으로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것이다. 언약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뱀의 머리를 깨고 증인이 된다. 놀라운 축복이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해방, 죄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땅끝, 남미 끝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